

3월9일(월) 요한복음 2: 23-25

**제목: 인간을 안 믿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였다.(23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들에게 의탁치 않으셨다.(24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환호하는 군중들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일시적인 무리들의 찬송과 칭송에 좌우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이다.(25절) 그는 인간의 변덕과 불안정성을 알고 계셨다. 그는 한 순간의 기분에 의하여 휩쓸리는 인간의 본성을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성에 신경쓰지 않으셨다.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병 고침을 받고 혜택을 입었기에 예수님을 환호하였을 뿐이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면 금방 변심할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감격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을 만나거나, 마음이 상하면 금방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자신을 의탁치 않으신다.

3월10일(화) 요한복음 3:1-15

**제목: 성령과 바람**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3절) 그리고 그 거듭남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5절) 그 성령의 능력은 마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다.(8절) 바람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사람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사람은 바람이 어떻게 불며 왜 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바람이 만들어내는 그 일은 알 수 있다. 사람은 바람을 맞을 때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광풍이 할퀴고 간 그 흔적도 볼 수 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볼 수 있다. 성령은 살인자를 전도자로, 낙심자를 불굴의 투사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꾼다. 성령은 바람처럼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절망해서는 안된다. 성령은 조용한 산들바람처럼 다가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풍처럼 사람을 덮쳐서 삽시간에 변하게 만들기도 한다.

3월11일(수) 요한복음 3:16-21

**제목: 공짜로 얻은 은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16절)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간의 소간(所幹)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엡 2:8)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인간은 믿을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허락한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신다.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인간 편에서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리고 이 독생자에 대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 사람의 마음 문도 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까지도 주셨다. 이렇므로 ‘독생자’를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만 돌려야 한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터 하나님의 일이셨다. 구원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느 말로 그야말로 공짜로 받은 것이다.

3월12일(목) 요한복음 3:22-30

**제목: 질투 안하는 비결**

세례요한 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자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고(26절) 예수님의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을 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상했다. 세례요한의 자기의 스승이 뒷자리로 물러가서 차석에 앉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당연한 일로 해석하였다.(27절) 새로이 등장한 저 예수가 자기 보다 더 많은 제자와 추종자들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자기로부터 사람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질투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투심이라는 것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다. 저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의 판결과 선택이었다고 받아드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다. 질투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난다. 질투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앙이 유난히 적은 것이다.

3월13일(금) 요한복음 3:31-36

### 제목: 하늘의 정보를 전해준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강조한다. 예수님은 위로 부터 오셨고(31-32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35절) 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36절) 또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만 전하신다.(32절) 여기서 예수님이 친히 어떤 정보를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자라는 대목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가정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그 가정의 가족을 만나야 한다. 만약 어떤 마을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그 마을에서 온 사람을 만나야 한다. 만약 하늘 나라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 하늘에서 온 자를 만나야 한다. 만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차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차적인 정보를 들고 서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소중한 일차적인 정보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싶으면 다른 성경보다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